

착유번식우 관리는 지금부터



박 성 재
소번식경영아카데미 원장
(농학박사)

겨우 내 미루었던 제분 작업이나 번식우의 피부에 부착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손질하여 번식우의 피부에서 많은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보다 활기찬 건강한 일 년이 되도록 번식우의 피부건강에 각별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나 꽃샘추위나 중국이나 몽고의 황사가 발생하는 계절이므로 호흡기 질병 및 사양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따뜻한 날에는 운동장 사정을 고려하여 일광욕을 시키면서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발정징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사 내부청소 및 소독을 하고,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고 환절기 일교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온도관리를 해주되 통풍이 잘되게 해주고, 하순경에는 보온 덮개 및 비닐 등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송아지는 내부보다는 외부 사육시설로 옮기도록 하고 습하지 않도록 청소를 자주 해 주고 건조한 깔짚을 자주 교체해 주며 송아지 사육시설은 소독한 후 햇볕에 잘 말려 사용토록 하여야 호흡기 질병이나 설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봄이 되어 젖소의 생체리듬이 점차 회복되는 시기이므로 동절기 동안 발정이 없었던 개체들에 대하여 운동 및 비타민이나 무기물 첨가제를 급여하고, 일광을 충분히 받도록 하여 많은 발정이 오도록 관리를 하고, 수태가 될 수 있도록 번식기관의 생리적 활력관리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래에 농장의 주축이 될 후보축으로 사용할 육성우는 반추위 등 소화기관과 골격을 충분히 발달시켜 튼튼한 착유우로 만들기 위해서 배합사료 보다는 양질의 건초 등 충분히 조사료를 자유급여 하여 고능력 착유우의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조사료와 물은 젓소가 원할 때 항상 섭취가 가능토록 해 주고, 사료조와 급수조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사료급여 순서로는 정상적인 반추위 내 미생물의 활동 및 산도 유지를 위해 조사료를 먼저 급여하고 배합사료는 가능한 횟수를 늘려 급여한다. 산유량만 근거한 농후사료의 지나친 급여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착유소의 경제수명 연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영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우, 육성우 관리 및 착유우 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질병 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전 자체방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목장입구에 설치된 분사식 방역장비를 가동해 보고 동과 누수나 노즐 내 오물의 침투로 막히거나 분무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목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과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안내문을 붙이고 실제적이고 예방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선 번식 후보 축은 적정 BCS(신체충실지수) 유지를 위한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획적인 번식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분만 후 우유의 생산이나 골격의 유지나 성장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간혹 필자가 컨설팅을 가면 벗짚위주의 관리를 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 방법은 미래를 보면 젓소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따라서 목장의 생산능력을 감소시키는 매우 잘못된 관행사육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후보 축에 대한 지출은 줄지만 분만 후 우유생산량의 감소나 체격발달의 저하, 번식기관의 발달 미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장단계별, 비유단계별 적정 영양공급을 해 주고 면역기능 강화 비타민, 생균제, 무기물 등을

철저하게 급여하여야 안정적인 낙농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만 전·후 대사성 질병 최소화를 위한 유도사양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적 영양관리에 의한 적기 성 성숙으로 초산월령이 24~25개월 령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후보축인 육성우는 당장 농가의 수입이 되지는 않지만 미래 건강한 착유우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추위 등 소화기관과 골격을 충분히 발달시킨 다음에 번식을 유도하여 강건한 젖소 후보축이 되도록 하고, 경산착유우의 경우는 정기적인 MUN 분석치를 점검하여 정상수준인 12~19mg/dl가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산유량이 높아진다고 해서 농후사료 급여량을 지나치게 높여주면 조농비의 불균형에 의한 반추위 산도저하로 산독증에 걸릴 수 있으며 번식생리에 큰 영향이 발생하여 발정지연, 무배란, 불착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임신을 유도해야 하는 시기의 착유번식우는 세세한 신경을 써야 번식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착유 중인 소의 위는 변화에 민감하므로 배합사료나 조사료를 바꿀 때에는 반추위내 미생물이 새로운 사료에 적응할 수 있도록 15일 이상에 걸쳐 서서히 바꾸도록 해야 유량의 저하나 채식량의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바꾸면 위와 장 속의 미생물이나 효소의 생리에 영향을 주어서 소화생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소화기 질환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자가 컨설팅을 위해 농가에 방문하면 대부분의 착유중인 고능력우 70% 수준의 두수에서 BCS 저하를 목격하게 되는 데, 생산 유량에 맞는 개체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몇 가지 개선점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능력우 중 유방의 용적이 넓은 경우는 발정표현의 강도가 미약한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공태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개체는 비타민과 무기물의 증량 급여와 함께 밀착형 발정관찰, 번식관리가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번식에 대한 표현의 강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고능력우의 발바닥의 건강도가 매우 낮아 발정의 징후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데, 고능력우의 정맥 내 혈액순환 능력의 저하로 발바닥의 염증이 자주 발생하여 발정징후 표현을 게을리 하여 공태일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수시로 발바닥의 건강을 점검, 치료하는 노력을 하여야 고능력우의 경제수명 연장과 우유생산량의 유지에 문제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우유 생산량에 비례하여 고단백 농후사료를 급여하면서 에너지 영양의 균형이 깨진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이 시기가 오래되면 착유우 체내 축적된 영양소를 소진하게 되어 골격이 눈에 띄게 돌출합니다. 결국 쓰러지거나 골다공증, 전위 등 고능력우의 건강에 적신호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유량대비 에너지 영양소 증량을 해야 합니다. 유량과 BCS를 같이 잡기 위해서는 에너지 영양소의 원천인 원당(설탕 제조 전 당 성분 입자)이나 글리세롤 등을 공급하여 고능력우의 경제수명 연장과 원유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를 막아야 합니다. 많은 농가에서 우유를 생산하면서 BCS 감소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매우 걱정되어서 필자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고능력우는 매일 특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고능력우는 특별히 피부청결(마사지), 음수량 점검(충분한 량 공급), 조사료 증량 공급, 비타민 무기질 공급 등 늘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고능력우는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매우 민감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능력우와 같이 관리한다는 것은 고비우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적은 경비로 가장 많은 우유를 생산하는 개체가 많을수록 내 목장의 수준은 상승하는 것입니다. 착유우의 번식의 왕도는 늘 관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개체관찰, 관리 노력의 결과입니다. 늘 소와 함께하는 습관이 낙농성공의 가장 기본입니다.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기록하고 한 번 더 소를 사랑하는 하루 일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낙농인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